

익산축산농가, 악취저감 총력 다짐

자정 결의대회 개최... 구제역·AI 예방 주 1회 축사소독,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 등 앞장

익산시 축산 농가들이 2일 대한한돈협회 익산시지부 회의실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익산군산 축협, 한돈협회 회원농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동성 지부장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축산악취 저감 의지를 다졌다. 이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석자들이 익산군산 축협에서부터 북부시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축산악취 개선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결의문에 따라 축산 농업인들



은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악취 사전 차단, 축사 주변 청결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고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퇴·액비 저장시설 운영·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AI 예방을 위한 주 1회 축사소독 실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 등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축산악

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해 '청정축산', '청정익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저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를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악취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축산 농가들도 더 이상 축산악취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가축사양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을 위해 민관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현안과제 추진하는데 지혜 모으자”

윤동욱 전북도 문화관광국장, 신임 군산시 부시장 취임

윤동욱 전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지난 1일자로 군산시 신임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윤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일정으로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현안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회와의 소통강화를 약속했다.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한국외대 행정학과, 뉴욕주립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전북도 투자유치과장, 관광산업과장 및 경제청 투자기획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거친 투자·행정 전문가로 앞으로 침체되어 있는 산업 단지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부 상경례저리에 참석해 재직기간 동안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잘 추진해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동욱 부시장은 "지역화폐 성공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등 재도약의 시점을 맞이한 군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군산문화회 야행과 시간여행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정학과, 뉴욕주립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전북도 투자유치과장, 관광산업과장 및 경제청 투자기획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거친 투자·행정 전문가로 앞으로 침체되어 있는 산업 단지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동욱 부시장은 다음 날부터 법원, 검찰청,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 관공서 및 관내 주요단체를 방문하며 시정현안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주민 생활기반시설 대폭 확충

남부·북부권 공공도서관 건립, 금마·왕궁·팔봉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익산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시는 각 권역별로 도서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나선다.

우선 동산동과 인화동 등 남부권 일대 도서관 건립에 속도를 높여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남부권 도서관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77억 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자료실과 자유열람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협조시설

이 집중돼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문화적 혜택이 타 지역보다 적었던 만큼 이번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초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계획을 거쳐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왕궁과 금마, 팔봉지역이 포함돼 있는 동부권 지역에도 각종 생활 기반 시설이 들어선다.

지난해 말 공사 착공에 들어간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마면 서고도리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약 28억 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는 건강증진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심뇌혈관·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마면에 도내 최초 한옥형 도서관도 들어선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금마면 서고도리 일원 서계마을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19억 원이 투입된 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문화교실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아울러 시는 북부권 합영을 일원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모사업 지원을 시도하고 있어 올 하반기 사업 선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원광대 석사과정 대학원생들 국제 유명저널에 융합연구 논문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병수) 전자융합공학과 김성훈 교수 연구팀과 바이오나노화학부 고혜민 교수 연구팀이 융합연구 결과를 국제 유명저널에 게재했다.

특히 대학원 전자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아르만도 씨와 바이오나노화학부 류세환 씨가 공동 1저자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고혜민, 김성훈 교수는 공동 책임저자로 연구를 진행했다.

'선택적 자기고주파온열암치료를 위한 자기장자유영역의 설계와 제어'를 주제로 한 이번 융합연구는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선택적 자기고주파온열암치료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큰 단점을 가진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체내에 자성나노입자를 삽입해 외부에서 고주파자극을 인가하여 발열하는 방법으로써 자성나노입자가 정상세포에 있는 경우 정상세포까지 죽는 큰 문제점이 있으나, 두 연구팀은 체내에 분포돼 있는 자성나노입자를 선택적으로 발열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존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암치료 기술 개발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인현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수해 복구사업 현장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해 태풍피해를 입었던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재난대비를 당부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재난피해를 입은 대야면 지경리, 구인동 현대아파트 앞, 소룡동 성원 썬데이 주변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해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 시장을 비롯한 안전건설 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피해를 입었던 장소에 대한 복구사업 상황을 직접 살폈다.

지난해 7월 1일 강임준 시장은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취소하고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수해예방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재난안전대비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해 재난피해를 입은 대야면 우덕실길은 수방자재를 활용해 안전조치 시행을 완료했으며 구인동 현대아파트 일원은 집중호우나 만조 시 상승침수가 발생해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반영해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소룡동 일원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신청해 현재 복구 진행을 실시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 지난해 신임시장 취임행사도 포기하고 상황을 지켜본 바 있다"며 "시민이 안전한 군산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가족 소통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15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가족

평생교육도시의 메카로 자리잡은 군산시가 초·중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나, 너 그리고 우리 온(溫)길 찾기 사업을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매주 주말 10회에 걸쳐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부모와의 갈등요인을 분석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나, 너 그리고 우리 온(溫)길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생이 주중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아빠지와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 30%,(어머니와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 33.1%로 나타나 현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매주 주말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부모와의 갈등의

요인을 찾아 분석,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또 나와 다른 타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경험해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따뜻한 시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나, 너 그리고 우리 온(溫)길 찾기 사업을 기획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대상은 초·중학생 3~6학년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30가족 모집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역사, 공예, 역할 인형극 등 총 10회로 매회 마다 심리 상담사들이 함께 참가해 가족 구성원별로 코칭,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익산서 농촌재능나눔 캠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9년 농촌재능나눔 캠프(전국공모 1개소)가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익산시 성당면과 용안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익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6개 교 대학생과 협약단체(UD치과, 약침학회)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 250여명

이 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과 집수리, 벽화 그리기, 사진촬영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캠프 마지막날인 5일에는 봉사단원들이 미륵사지와 교도소세탁장 등을 방문해 추억을 쌓아갈 예정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